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1
FOR PEACE & PROSPERITY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



마스다 하지무

Masuda Hajimu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ofessor

토론문

‘사회 전쟁’의 시점에서 학살 사건을 재고하다

‘사회 전쟁’의 시점에서 학살 사건을 재고하다

마스다 하지무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제주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역사학부 마스다 하지무입니다. 전문분야는 20세기 아시아 역사, 그리고 한국전쟁과 냉전의 역사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사회 전쟁’이라고 일컫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다양한 투쟁에 초점을 맞춰 냉전 세계와 그 역사를 재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박태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제주도 43사건의 재검토에 대한 박 교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사건을 단지 한국사의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틀 안에서 파악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과 중첩시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서두에서 제주도 사건의 본질과 그 규모가 과거 20년간 조사를 거쳤음에도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특히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과 한국군이 자행한 학살 사건과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1965-1966)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어떠한 경우든 국가가 했던 역할, 이를테면 언론 조작이나 프로파간다를 통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학살의 무대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학살 사건을 실행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것을 은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확실한 책임 요구, 진실과 보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즉 제주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역사적 항쟁에 대해서 학술적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두 가지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의 범위를 넓히는 것,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항쟁의 측면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은 제주도 사건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학살 사건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비교의 범위를 넓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회적 진압도 비교 대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진압에는 이를테면 앞서 언급된 인도네시아 대량 학살 사건 외에도 미국의 매카시즘, 일본의 레드퍼지, 대만의 백색공포, 필리핀의 후크단 반란 진압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역사적 사건을 ‘사회적 진압’이라고 부르는 것에 놀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건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진압’, 더욱 구체적으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한 반공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견해로는 냉전 시대의 탄압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항쟁이나 역사적 대립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케이스를 잘 살펴보면 그것들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매카시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반공주의 정치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그들이 반드시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 동조자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는 오히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민권 운동가, 노동 운동가, 페미니스트 운동가, 게이와 레즈비언, 공영 주택이나 국민 개호보험 제도 등의 뉴딜 프로그램 제창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한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회 변화의 요소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

니다. 즉, 사회적 시점에서 보면 매카시즘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돈 속에 다양한 의견 차이를 봉쇄하고 그것들을 억제하기 위해 확산된 일종의 토착주의적인 반격, 즉 사회보수주의적인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대만, 필리핀 그리고 세계 각지의 사례에 대해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영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발간된 저의 저서에서는 각각의 사례를 검증하고 그들 사례를 ‘사회 전쟁’이라는 세계적 현상의 일부라고 서술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의 세계라면 ‘풀뿌리 보수’라고도 불릴 만한 보통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의견 차이와 사회 변화의 요소를 ‘냉전’이라는 이름 아래 봉쇄했는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1965-1966) 자체는 저의 저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냉전의 재인식: 아시아의 경험에서 생각하다’를 통해 인도네시아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거듭하여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을 사회적 시점에서 재검토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가, 특히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대립과 로컬 문제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를테면 마을이나 그 인근에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알력, 더 나아가 젠더적·종교적·민족적 대립, 개인적 언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비교 대상을 넓혀 제주도 사건을 이러한 사회적 진압과 견주어 보면 거기에는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 박 교수님께서 지적한 마지막 요점, 즉 사회적 항쟁이나 역사적 대립과 같은 측면을 직시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냉전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다툼이 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들 수 있습니다. ‘전후 한반도에서 생겨난 각종 대립은 정말로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서만 생겨났을까?’, ‘대량 학살은 정말로 국가 권력과 민중(도민) 사이에서만 자행되었을까?’, ‘제주도에는 사회적·문화적·지역적 대립이 없었을까?’.

즉, '냉전 대립'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문화적·지역적 혹은 젠더적·세대적으로 어떠한 대립이 내재되어 있었을까요. 비록 이데올로기가 중요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의 어떠한 심정이 '이데올로기'라는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요약하자면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사건 전후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반도 그리고 한국사회는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격렬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나 제주도에 잘 적용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식민지 시대 이후 수천 명, 수만 명의 도민들이 일본에서 제주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민지 시대에는 많은 도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의 고향이기도 한 오사카의 경우, 전체 조선인 중 절반이 제주도민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오사카에서 일어난 조선인 노동 운동의 역사와 그에 대한 조선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전쟁 후 새로운 관습과 문화, 새로운 사회 운동의 이상적인 모습, 새로운 젠더의 개념을 제주도에 가지고 돌아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모든 것이 제주 사회에 변화의 싹을 틔움과 동시에 사회적 긴장의 불씨가 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의 그 어느 지역보다 거세게 일어났다고 해도,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 대상의 범위를 넓혀 사회적 대립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제주도 사건을 20세기 세계사라고 하는 광범위한 틀 안에 위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 사건의 성질 그 자체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한국 분들과 공동 연구를 한 적은 없지만, 향후 제주도와 한국의 연구자들과 이러한 연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